



그 길의 끝에서 시간여행

철도박물관

철길이 등장하는 영화는 대부분 서정적인 풍경을 담는다. 소년과 소녀는 철길 위를 걸으며 애뜻한 첫사랑의 감정이 시작되고, 중년의 나이에 찾은 철길은 지난날의 회상과 같은 옛 추억의 소환으로 그려진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뒤지지 않는 기술력으로 전국 곳곳에 고속철이 깔렸다. 어디든 만나질 생활권이 가능해져 우리의 일상에 편리함을 더했다. 그런데도 '기차'만 보면, 아날로그 감성에 사로잡히게 된다. 아스라이 떠오르는 그립고 몽글몽글한 감정에 끝이 보이지 않는 철길을 걷고 있는 듯하다.

글·사진 김효정

추억을 소환하는 공간

오래된 기차가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한 채 정차해 있다. 더 이상 기차는 달릴 수 없지만, 박물관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맞이하며 지난날의 화려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지금의 의왕 철도박물관은 1988년 1월에 의왕시 철도교육단지 안에 개관한 것으로, 1935년 구 철도박물관을 모태로 했다. 철도박물관은 크게 야외 공간과 내부 전시관 1, 2층으로 구성된다. 철도박물관은 총 1만 2,000여 점이 넘는 소장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국가등록문화재가 13점이나 될 만큼, 역사적 가치가 있는 소장품을 만나볼 수 있다. 정문으로 들어서면 펼쳐지는 야외 공간에서는 대통령이 대외적인 행사를 치를 때마다 사용된 '대통령특별동차'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쌍둥이처럼 두 대의 열차가 나란히 서 있는데, 대통령 전용 열차와 경호용 열차로 나뉜다. 기차 앞부분에 봉황무늬 명패가 달린 이 기차가 대통령 전용 열차인데, 1969년 일본에서 들여온 특별동차로 30년간 대통령을 위한 전용 열차로 운행했다. 경호용 열차는 1985년 HD현대인프라코어(前 대우중공업)에서 만든 것으로, 만일의 공격에 혼선을 주기 위해 외관을 똑같이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열차 문이 닫혀 있어 내부는 들어갈 수 없지만, 창문 너머로 집무실과 침실을 볼 수 있다.

대통령특별동차 이전에는 대통령 전용 객차가 있었다. 1972년 경성 공장에서 조립해 일제강점기에는 1등 전망차로 사용하다가 1955년에 대통령 전용으로 개조되었다. 이후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대통령까지 이용했다.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이 열차 역시 내부에는 집무실, 침실, 식당 등이 마련되어 있다.

이 밖에도 야외 공간에는 기차에 물과 연료를 싣고 다니는 증기기관차 미카 3-161, 2002년까지 수도권 전철 1호선에서 운행되던 수도권 전동차 1115호, 1962년에 객차 대량생산 체제를 갖춘 후 제작된 비둘기호 객차 12061호, 1974년 스위스에서 들여와 1988년까지 철도 보수용으로 사용한 멀티플 타이템퍼 등을 관람할 수 있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철도의 발자취

실내 전시관으로 들어서면 까만 모형 열차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파시 1-4288 증기기관차 모형으로, 1930년 파시 1형 증기기관차 제작을 기념해 동일한 기관차를 1/5로 축소해 만들었다. 놀랍게도 실제 구동이 가능하며, 1955년 10월에 해방 10주년 기념으로 산업박람회에서 시범 운행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관람을 위해 역사실로 들어서면, 철도의 시작과 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연대기가 한쪽 벽면에 정리되어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간선철도인 경부선은 서울과 한반도의 관문인 부산을 잇는다. 그 시절 부산역의 모형과 터우형 증기기관차의 모습도 전시되어 있다. 서울역의 눈부신 야경도 눈에 띈다. 옛 서울역과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새로 지어진 서울역이 서로 어우러진 모습이 아름답다. 이 밖에도 호남선·충북선 개통 때 남겨진 기념품과 김재현 기관사의 유품, 서울역 양식당 '그릴'의 모습도 전시장 안에 재현되어 있다.

아이들을 위한 체험도 마련되어 있다. 철도 역장 제복을 입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운전 체험실에서는 직접 기관사가 되어 열차 운행의 기회도 주어진다. 철도모형 디오라마실에서는 작은 모형 기차가 움직이는 것을 관람할 수 있는데, 증기기관차를 비롯해 무궁화호, 새마을호, KTX 등이 선로 위를 달린다. 정해진 시간대에만 운행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방문했다면, 시간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

info.

철도박물관

www.railroadmuseum.co.kr

관람시간

하절기(3 ~ 10월)

09:00 ~ 18:00(17:30 입장마감)

동절기(11 ~ 2월)

09:00 ~ 17:00(16:30 입장마감)

휴관일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개관)

공휴일 다음날

(다음날이 주말인 경우에는 개관)

1월 1일(신정), 설·추석 연휴기간

기타 박물관장이 지정한 날

입장료

일반 2,000원 / 어린이·청소년 1,000원

*단체 및 무료입장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관람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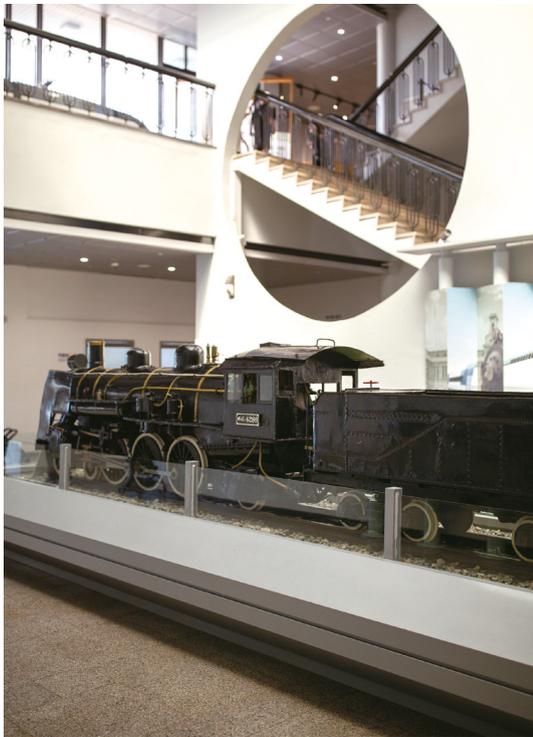
041-461-3610

주소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42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는 박물관

전시실 2층에는 철도와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이 마련된다. 계단을 오르자마자 관람객을 맞이하는 KTX 모형이 반갑다. 전기실에 들어서면, 철도 전기와 신호, 통신기술의 발전까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소개한다. 관람객이 직접 차량 이동을 지시하는 신호 장치인 입환 신호기와 단등형 신호기를 직접 체험해 보며, 안전 운행을 위한 철도 신호 장치의 원리에 대해 알아간다. 철도가 있는 건널목에서는 안전이 필수다. 열차와 보행자,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설치하는 철도 건널목 장치가 그대로 재현되어 있어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철도 제복을 비롯한 철도전기분야의 직원들이 입는 옷과 공구를 전시해 두었고, 시설에서는 열차가 다니는 선로와 정거장, 교량, 터널,



철도 구조물의 구성과 발전 과정을 소개했다. 700톤이 넘는 기차의 하중을 받치는 철로 레일의 단면을 그대로 노출한 것은 흥미로웠다. 수송서비스실에는 여객과 화물 수송을 위한 역무, 그리고 운전 업무의 발전을 비롯한 기차 여행의 즐거움을 담았다. 철도청의 <열차운전 시행절차>나 <운전관계규정> 책자는 지금은 모바일로 지원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필요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승무원이 언제나 휴대하고 다녔다고 한다.

철도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는 '디젤기관차 예술이 되다'라는 주제로 영상과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전시에서는 최초의 한국형 디젤기관차 'GT-26 CW2'를 1:16급 금속모형으로 재현했다.

기차가 뿌연 연기에 굉음을 내며 달리던 지난날, 철도는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동력이었다. 도시와 농촌을 잇고 산업화를 이끌며 우리의 생활을 180도 바꿔 놓았다.

철도가 걸어온 길과 더불어 우리의 과거와 미래의 이야기가 담긴 철도박물관으로 당신을 초대한다. 🐾